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제
한국ABC 발행

LA, 제2의 실리콘밸리 꿈꾼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10대 변수
감정 폭발 않고 현명하게 화내는 법

2012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축구 비즈니스 결정판’ 이적료의 세계

‘박근혜의 숨은 힘’ 재계의 서강대 인맥
헤미리마트 홍석조 회장이 마이웨이 선언한 까닭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박재석 삼성증권



김동원 현대증권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이원선 토러스투자증권



장효선 삼성증권



신승현 미래에셋증권



한승호 신영증권



최남곤 동양증권



양지환 대신증권



지기창 NH농협증권



서정연 신영증권



전재천 대신증권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정연우 대신증권



권성률 동부증권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전군 삼성증권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장화탁 동부증권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최정욱 대신증권



정동익 한화증권



박승영 토러스투자증권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오태동 토러스투자증권



이훈 한국투자증권



주익천 유진투자증권



박기현 동양증권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정근해 우리투자증권



유승민 삼성증권



윤창웅 신한금융투자



값 4,000원

ISSN 1228-4440

한국경제신문

빛장 풀리는 미얀마 금융·보험업

외국계 은행의 직접 진출 가시화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 온 미얀마의 개혁 정책이 금융·보험업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11개의 미얀마 민간 은행에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싱가포르 달러화 3종의 외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4년부터는 외국계 은행들이 미얀마에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963년 이후 민간에 허용되지 않았던 보험업에 대해서도 민간 보험사에 대한 인허가를 내 주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미얀마에서는 종래 중앙은행 이외에 3곳의 국영은행이 있고 민간은행들도 다수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 예금 및 대출 업무 이외에 외환 거래, 신용장(LC) 개설 등의 업무는 국영은행인 미얀마투자상업은행(MICB)과 미얀마무역은행(MFTB)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달러화 송금 제재로 직접 달러화 송금이 불가능하고 업무 협약 관계에 있는 소수의 은행들과 장부 차감 방식에 의한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MICB와 MFTB가 업무 협력이 가능한 해외 은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들 은행이 발급한 LC를 해외에서 교환해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얀마 현지에서는 미얀마 은행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LC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 왔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나 태국 현지에 LC 개설 및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해 줄 사람을 마련해 줘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어 왔다.

외국계 은행의 미얀마 진출 허용도 미얀마의 부족한 금융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에 외국계 은행은 대표 사무소의 개설만 허용되고 은행 영업 자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외국계 은행에 허가될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외환 업무가 그 범위에 포함되면 해당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네트워크만으로도 기존에 겪어 왔던 외환 업무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수의 외국계 은행이 미얀마투자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5년부터는

외국계 은행의 직접 진출도 허용한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금융회사 중에서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미얀마를 동남아시아 사업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조만간 양곤에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IBK기업은행도 내년 상반기에 사무소를 열고 합자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얀마의 보험 시장은 1963년 이후 유일한 국영 보험회사인 미얀마보험회사(Myanmar Insurance Company)에 의해 독점적으로 유지돼 왔다. 미얀마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 회사들은 미얀마보험회사를 통한 재보험 형식으로 외국계 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했다. 이번에 미얀마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 생명보험·자동차보험·손해보험 등 6개 분야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업 허가를 위해서는 은행 잔액 기준으로 5억 70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혁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의 개방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지난 4월 관리변동환율 채택을 시점으로 금융 분야의 개방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 내부적으로도 향후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경제 발전에 금융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가시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금융회사들에 비해 한국 금융회사의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지금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적당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미얀마 정부가 민간은행의 외환 거래와 민간 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빛장을 풀고 있다.